

과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는가?*

이신웅(백석대)

1. 문제 제기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는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급격하게)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 특히 역사적으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적 상황에서 국내로 전래된 기독교의 성서는 여성을 남성을 “돕기 위한 배필”로서 남성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번역을 비판 없이 유포하며, 사회 전반에 더더욱 여성을 남성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22S1A5B5A17046628).

1 최성훈, “여성혐오와 성차별: 기독교 여성관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56집 (2021), 169.

의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²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이 땅에 제도화시킨 호구제도는 더더욱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상을 심화시키며, 여성은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로 규정하며 남성에게 종속된다고 가르쳤다.³ 그 결과 국가적 종교라 자부하는 한국 기독교(특히 개신교 보수주의)⁴는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기 보다는 교회 내에서 여성혐오와 여성편하의 왜곡된 통념을 종교적 신념으로 은밀하게 무의식적으로 정당화⁵하기에 이르렀고,⁶ 한국 사회

2 유교(유학)는 본래 천존지비나 남존여비의 관념이 없었는데, 송대 시대에 종법정신이 다시 강조되어 강력한 부계적 가족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조선은 통치 이념으로서 성리학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제도로서는 종법적인 부계 가족 질서를 이상으로 하여 기존의 모든 사회제도를 그에 맞게 변화시켰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2003), 163-165. 또한, 한국의 원신앙은 애니미즘적 무교로서 남성 무교가 아닌 여성 무교가 대다수인 바, 기독교는 원래 부계 사회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여성 무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 수용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조선 시대는 유교를 기반으로 한 부계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수용되기 쉬운 사회 형태였다. 아사미 마사카즈 & 안정원, 『한국 기독교, 어떻게 국가적 종교가 되었는가』 (양현혜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15), 179.

3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윗글, 275-277.

4 국내에 전래된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 '독립'이라는 정치 목표와 '민족적 고난'으로부터 구원된다는 선민사상-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적 선민사상을 적용함과 결함됨으로써 민족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었고, 이때부터 기독교는 한국의 민족종교라는 색채를 띠게 되었다. 아사미 마사카즈 & 안정원, 윗글, 202-203.

5 이에 대해 백은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 문화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기독교는 여성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성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성혐오적인 내용들은 언제든지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백은미, "기독교 교육과정에 내재한 여성혐오 분석과 대안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1집 (2017), 46.

6 예를 들어, 예장 합동 김동현 목사는 자신의 번역서의 역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솔직히 말해 미국에 살기 싫었던 제일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이 너무도 설쳐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여자목사가 생기는 사악하고도 교만한 일이 버젓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에 어긋하는 분명한 일임에도 감리교나 자유주의 교단은 여성목사안수를 허락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일 눈꼴 사나운 일이 있다면 젊은 청년들의 여성화입니다. 교회마저 여성들이 드세지는 것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여자 목사안수는 무서운 범죄임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존 칼빈, 『칼빈이 말하는 교회에서의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 (김동현 옮김) (서

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은 “젠더”와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과 성차별의 기초 권력 체계인 가부장제를 타파하며 남성주의적 기존 질서의 타파를 위해 투쟁하고,⁷ 기독교교육학자들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혐오를 극복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대안적인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적인 과제를 제시하며,⁸ 여성 성서신학자들은 성서 본문의 주석적 연구를 통해 이데올로기화된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성서 해석-여성의 남성 종속성-에 대해 비판하며 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⁹ 특히 기독교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교회와 목사 그리고 설교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문제를 고발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적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필자가 판단컨대 여자는 남자의 **עֶלְוָה**(첼라/갈빛대 혹은 갈비뼈)로

을: 솔로몬, 1994), 9-10. 한편, 예장 합동 소속 박유미 박사는 개신교 내의 보수교단에 서 칼빈의 성경주석을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매우 절대적인 권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칼빈 사후 500년이 지난 지금시대에도 정당하지 않으며 칼빈의 해석학적 정황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그대로 현재 한국 기독교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박유미, “칼빈의 해석은 영원한 진리? 여성 본문에 대한 칼빈구약주석 연구”, 「구약논단」, 24권 1호 (2018), 104-136.

7 예를 들어, 박진우, 이정음, “한국의 여성혐오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집 (2019): 70-89.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으로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집 (2017): 77-105.

8 예를 들어, 성호숙, “현대 기독교 여성관 정립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모색”, 「신앙과 학문」 17권 (2017): 127-147. 백은미, 윗글, 41-73.

9 예를 들어, 유연희, “창세기 1-3장을 쿼어링하기”, 「구약논단」 26권 4호 (2020): 188-218. 이영미, “성서의 쿼어싱과 해석의 다양성: 인간 창조(창 1:27; 2:7, 24)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54권 2호 (2017): 35-61.

10 예를 들어, 강호숙, “개혁교회 성윤리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목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문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26집 (2012), 172-200. “개혁교회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여성 신학적 고찰: 성차별적 설교의 정의와 기준 마련 및 복음적 설교에 대한 여성 신학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집 (2016), 301-326.

만들어졌다는 성서 번역에 대해, 일반학자들은 물론 성서신학자들(특히 보수주의진영)이 그것이 성차별과 성 갈등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을 제대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성차별과 성 갈등 그리고 가부장적인 여성혐오와 여성평화의 이데올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작금의 이 문제적 상황은 인간 창조와 여성 창조를 말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히브리어 텍스트의 부족한 번역을 맹신하고 무비판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무반성적이며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으므로 이제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해당 성서 텍스트인 창세기 1장과 2장을 묶어 두 인간 창조의 동등성을 제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선행된 연구가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가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 상이한 설명, 곧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적이고 종속적 관계로 설명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자료에서 유래되었기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서, 기독교에서 아무리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과 평등성을 강조해도 결국 성차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불행한 피비우스의 띠만 반복할 뿐이다. 더구나, 창세기 2장의 여자 창조의 경우에 그나마 남자와의 동등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עֶרְוָה וְכִנּוּיָהּ**(에제르 케네그도/돕는 배필)와 **צֶלְעָה**(첼라)에 대한 고대 근동의 신화와의 비교 분석, 고대와 중세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들의 비교 그리고 “첼라”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전부로서, 그것이 어떻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와 여자 창조 이야기

www.kci.go.kr

를 주석학적으로 분석한다. 세밀한 읽기(close reading)를 통해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원리와 그에 따른 인간 창조를 분석하고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¹¹을 밝힌다. 다음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창세기 2장의 여자 창조가 남자의 갈비뼈가 아닌 이미 제시된 창조 원리에 의해서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밝혀, 남자와 여자는 창조된 재료와 원리가 동일한 ‘하나’의 존재로서, 두 존재는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임을 제시한다. 결국 창세기 1장과 2장이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제시함을 통해 성차별과 성 갈등 문제의 해소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기독교 내에 인식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입장¹²과 기독교 역사에서 이루어진 여성 차별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기에 직접 다루지 않는다.¹³ 다만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질문들을 과제로 제시하여 이 주제와 관련된 논의가 더 풍성하도록 한다. 특별히 그동안 서구 남성 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온 남성중심의 성서해석에 적지 않은 여성신학자들의 도전과 비판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중속-비중속의 원론적인 논쟁만 평행선을 그을 뿐 여성 신학자들조차도 “첼라”(갈비뼈)의 더 나은 해석과 이해에서는 소극적인 면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런 흐름에 문제를 제기하며 하나의 해석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고 도

11 본 논문에서 “동등성”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원리와 창조된 재료에 한정된다.

12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보라. 송인규, “여성의 위성: 영미 복음주의의 내의 지형도”,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8), 14-83. 송인규는 기독교 내에 여자와 남자를 이해하는 네 개의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가부장제 입장. 둘째, 상호보완주의(complementarism). 셋째, 평등론(egalitarianism). 넷째, 페미니즘(feminism). 이 시점에서 가장 문제적인 층들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해석과 급진적인 여성 중심의 해석이다.

13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보라. 손승희, “神學과 性差別主義 이데올로기”, 『神學思想』 40호 (1983), 165-171. 정용석, “기독교 여성관의 역사”, 『대학과 선교』 13호 (2007), 2-14. 최성훈, 『읽기』, 177-183.

전적이며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2.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분석

비평학자들은 창세기 1장은 P문서(제사장 문서)로 창세기 2장은 J문서(아해 문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한다. 하지만 최종 텍스트의 정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두 창조 이야기가 망원경과 돋보기라는 문학적 형태의 한 쌍의 이야기로 읽혀지도록 의도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이 한 쌍의 이야기가 인간 창조와 여자 창조를 각각 창조의 절정에 배치시키는 바, 두 창조 이야기가 어떤 창조의 원리를 사용하여 한 쌍을 이루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창조 원리로서의 “토후와 보후”와 “에하드”

창세기 1장에 대한 세밀한 읽기의 결과, 필자는 “토후와 보후”가 창조의 원리로서, 궁극적으로는 “에하드”를 이루려는 것임을 관찰하였다.

(1) “토후와 보후”(תהו ובהו)

이른 시기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창세기 1장 2절의 תהו ובהו(토후와 보후)라는 서술보어를 “혼돈과 공허”로 번역하여, 이것들이 창조의 재료라고 주장해 왔다.¹⁴ 그러다가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이 해독

14 유대교 전통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6일 창조 이전에 선재하는 창조의 재료로 이해했다. Jacob Neusner, Wendell S. Dietrich, Ernest S. Freicht, Calvin Goldscheider, Alan Zuckerman eds., *Genesis Rabbah The Judaic Commentary to the Book of Genesis A New American Translation vol. 1 Parashiyot One Through Thirty-Three on Genesis 1:1 to 8:14*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5), 1:V, 3-4. 특히 11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랍비 라쉬는 창세기 1장 1-2절을 선재적 상황, 또는 질료 창조로 해석한 최초의 랍비다. Warren Zev Harvey, “Rashi on Creation: Beyond Plato and Derrida,” *Aleph: Historical Studies in*

됨에 따라 해석이 확장되는 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6일 창조 이전에 창조의 바탕이 되는 선재되는 “재료” 또는 “세력”이 있었고, 선재적 재료 혹은 물질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라는 공통적인 이해를 보이며, 천지 창조 때에 사용된 재료 혹은 물질이라고 주장한다.¹⁵ 번역 성서의 경우 이른 시기의 그리스어 역본들은 혼합된 관점을 보여주는데, LXX(70인역)은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ἀόρατος καὶ ἀκατασκεύαστος, 아오라토스 카이 아카타스케우아스토스)으로 번역했지만, 아퀼라(Aquila)와 테오도티온(Theodotion) 및 심마쿠스(Symmachus)는 무(無)나 가공되지 않은 물질 또는 구별할 수 없는 것 등을 반영하는 단어를 선택했다.¹⁶ 국내의 경우도 개역과 새번역 등 대부분의 한글 번역성서들은 יהוה, אֱלֹהִים를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번역하여, 야훼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것들을 재료로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 구약신학자 존 월튼(Johh H. Walton)이 잘 지적했듯이 이러한 번역은 이미 물질 존재론을 매개로 사유하는 현대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¹⁷ 왓슨(Rebecca S. Watson)과 츠무라(D. T. Tsumura)도 “토후와

Science and Judaism 18/1 (2018), 34.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플라톤주의에 대한 변증으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혼돈 물질에서 질서를 세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배철현, “Creatio ex nihilo”, 『종교학연구』 21집 (2002), 33-34.

15 예를 들어,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Jersalem: Broadman & Publishers, 1961), 23. Richard E. Friedman, *Commentary on the Torah* (San Francisco: HarperCollins, 2001), 6. 이상성, 『벌거벗은 성서』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8). 쿼어성서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혼돈 상태에가 질서와 천지창조로 트랜스했다고 말한다. 유연희, 『읽글』, 191.

16 존 H. 월튼,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 (강성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51-252. 원제는 Johh H.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17 월튼은 “토후”에 대한 자신의 논의에서 “토후”가 혼돈을 가리킨다고 보는 일반 견해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혼돈은 그 어떤 고대 근동 문헌에서라도 발견되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기에는 너무 강렬한 용어이므로 창세기 1장의 논의에 끌어 들여서는 안 되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단언한다. 존 H. 월튼, 『읽글』, 251-259.

보후” 두 단어 중에서 어느 것도 “혼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순히 “비어 있음”을 의미하기에, 이 표현이 비록 중언법(hendiadys, cf-merism)으로 쓰였을지라도 그런 의미가 없다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¹⁸ 따라서 우리는 굳이 물질적인 재료 개념을 억지로 넣지 않더라도 토후와 보후가 가진 원래적인 의미, 곧 “모양이 없음”(unformed, formlessness), “텅 비어있음”(emptiness)-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왜냐하면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하면서 굳이 이미 존재하는 물질 재료를 언급하고 그것으로부터 창조를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토후와 보후를 해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진행된 창조 과정은 **וַיְהִי**(토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은 **וַיִּבֶן**(보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풀이한다. 즉 토후는 나누고 구분하여 생명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사역과, 보후는 빈자리를 채워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²⁰ 하지만 텍스트를 세밀히 보면, 비록 “토후와 보후”가 땅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을지라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토후와 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즉, 1절의 ‘창조하다’란 뜻으로 해석되는 ‘**וַיַּבְרֵא**’(바라)가 셈족의 어원적 의미

18 Rebecca S. Watson, *Chaos Uncreated* (Berlin: de Gruyter, 2005), 16-17; D. T. Tsumura, *Creation and Destruction: A Reappraisal of the Chaoskampf Theory in the Old Testament*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22-35. 이에 대해 윌키는 토후의 부정적인 외형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비어 있음” 보다는 “혼돈”이 더 적합하다고 츠무라를 지적한다. 브루스 윌트키, 「구약신학」(김귀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210. 원제는 Bruce K. Waltke,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07).

19 최근에 번역된 「쉬운 성경」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 내고 있다.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 창세기 1장 2절).

20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71.

에 따르면,²¹ 이미 외형적으로 “잘라서 모양을 내는”(to cut, shape)²²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땅에 관련된 창조의 전개 과정은 먼저 외형의 골격을 만들고 그 뒤에 내용물을 채워 넣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외형을 만들고 내용물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필자가 볼 때, 외형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내용물을 꼭 채운다는 의미는 완전한 **אֵלֶּה**(에하드/하나)의 — 분리될 수 없는 — 완성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텍스트의 흐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것에 대한 비전을 먼저 보여주고, 1장 2절에서 토후의 의미인 모양(외형)이 없는 것(formless)과 보후의 의미인 내용물이 없는 텅 빈 것(emptiness)을 좀 더 확장시킨 다음, 1장 3절 이후에 전개 될 ‘창조’는 먼저 외형(모양/shape)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만드는 구체적인 순서로 점층적으로 전개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는 이러한 흐름을 완성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2) “에하드”(אֵלֶּה)

창세기 1장에서 “에하드”의 의미는 두 개의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21 G. J. Botterweck, *Der Triliterismus im Semi. BBB*, 3 (1952), 64f, cf. *TDOT*, Vol. II. 245. *BDB*, 134. *NIDOTTE*, Vol. 1. 728-735.

22 이를 위해, 성서히브리어 최고 권위의 사전인 Koehler-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vol. 1 (Lieden: Brill, 1994), 153-154에서 ‘אֵלֶּה’를 동음이의어적 (homonymic) 어원으로 나누어 각각 Qal, “to create”와 Pi’el, “to shape by cutting”(cf. 수 17:15-18, 겔 21:19[24], 23:47, 민 16:30)으로 구분한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R. C. Van Leeuwen, ‘אֵלֶּה’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1 (ed. W. A.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728-735를 보라. 한편, 노아의 방주(창 6:15-16), 모세의 성막(출 25:9, 40), 솔로몬의 성전(대상 28:12, 19), 스킵바벨의 성전 재건(학 1:8, 숙 4:9-10)과 관련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겔 40:4) 모두가 각각 시공 이전에 야훼께서 손수 계획하신 설계도면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cf. 히 11:10 - “이는 그가 기초들을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의 설계사와 건축사는 하나님이다”(ἐξεδέχετο γὰρ τὴν τοὺς θεμελίους ἔχουσαν πόλιν ἧς τεχνίτης καὶ δημιουργὸς ὁ θεός, 계 21:2).

있다. 첫째, 창조 과정에 나타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1-3일 동안 큰 틀의 모양(외형)을 만들고, 4-6일은 각각의 큰 틀에 안에 맞는 내용물을 채워 넣는 형식이다. 구조를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한 쌍으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한 쌍으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쌍은 비록 두 개이지만 하나하나 각각은 합해졌을 때(קָבַץ, 따박/붙어있다) 진정한 ‘하나’가 됨을 보여준다. 텍스트는 이러한 ‘한’ 쌍의 배열을 위해, 그리고 ‘한’ 단위의 배열을 위해, 특별히 נָחַדָּ (바달/나누다)²³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창조한다”는 것은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 또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별 짓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의미로서,²⁴ 쉽게 말하면 함께 있어야 될 것끼리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온전한 “하나”가 되려면 잘 나누어져 그 외형(shape)에 맞는 그 내용물과 합해져야 되는 것이다. 게다가 4-6일의 피조물을 보면, 모든 외형들은 ‘생명’을 감싸는 것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것은 결국 외형과 내용물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임을 다시 강조하며, ‘하나’가 드러내려고 하는 최종적 의미는 ‘생명’임을 말한다.

둘째, “첫째 날”(בְּיוֹם הַאֶחָד, 욥 에하드)에 나타나 있다. “욥 에하드”는 단순히 “첫째 날”이라기보다는 “꼭 찬 하나의 날”이며 그 날로서의 “첫째 날”로 이해해야 한다. 즉 “외형과 내용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 첫 번째 날”,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날로서 첫 번째 날”이라는 말이다. ‘날’(욥)이란 것이 ‘외형’ — 다른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모양이

23 히브리어 “바달”은 “분리하다, 나누다”를 의미하는 바, P 문서의 창조 기록(창 1:4, 6절, 7절, 14절, 18절)에서 창조주를 질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동사이다. *TDOT*, vol. II, 1-2.

24 Bruce K. Waltke & 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61.

었지만 ‘날’은 보이지 않은 외형을 가졌다 — 이고, 그 ‘날’의 기간 또는 시간 안에서 엘로힘이 하신 일이 ‘내용물’이기에, “욘 에하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따바크”(연합)되어 온전한 ‘하나’의 모습을 보인 ‘하나’의 날로서 ‘첫 번째’ 날이었다는 것이 텍스트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낸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의 “날”(욘)은 저녁과 아침이 붙어있는 “한” 날들이 계속 연결되어 연속적인 ‘날들’을 보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날이 ‘하나’(에하드)의 날로서도 기능하는 전체성과 개별성의 이중적인 면을 보인다. 또한, 저녁과 아침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날이듯이, 각각의 날들도 앞뒤 날들과 분리되지 않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날임을 보인다.

엘로힘은 이 분리되지 않는 “날”들이란 외형 안에 생명이라는 내용물을 채워, 빛이 있을 때는 생명을 위한 활동을 하며 어두울 때는 생명의 확장과 안정을 위해 안식을 취하도록 생명 유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결국 “에하드”는 창세기 1장에서 “토후와 보후”와 함께 창조원리 — 외형과 내용이 하나가 되어 생명을 이루는 것 — 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 수 있다.



2) “토후와 보후”와 “에하드”로 본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26-27절은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기록한다.²⁵ 유연희가 잘

25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이 엘로힘의 형상과 모양대로 (בְּצַלְמֵנוּ כְּדִמוּתֵנוּ) 창조되었다고

지적했듯이, 이 두 구절은 성과 수의 불일치, 이상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단어와 문구가 있어서 번역과 이해가 어렵다.²⁶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창조는 “토후와 보후”와 “에하드”의 창조 원리를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엘로힘은 26a절에서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아담)’을 만들 것”을 의논하였다. 이 ‘사람’(아담)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모양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אָשַׁף’(아사/만들다) 동사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엘로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설계도면이 언급됨으로써, 앞으로 창조될 인간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눈에 보이며 모양이 있는 구체적인 상태”로 정교하게 ‘자르는’(바라) 것처럼 ‘창조될 것’이 이미 암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은 세 개의 동사절을 통해 엘로힘이 그 설계도면대로 אִמְאָן(하아담/그 인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흠이 없이) 정교하게 자르듯이 창조하였다고 ‘바라’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⁷ 이를 두고 웬함(Gordon J. Wenham)은 이 세 개의 절은 동격으로서 사람은 신적 형상을 강조하는바, 특히 여자들도 신적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한다고 말한다.²⁸

말하는데, “형상”과 “모양”은 창세기 5장 1-3절에서 서로 바꿔 사용하는 것에서 시사하듯이 본래 형태나 모습을 가리키는 동의어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는 두 명사를 의미에서 동등한 어구로 인정하며 육체적인 특성으로 이해했고, 기독교는 두 명사를 영적인 능력 및 정신적인 능력과 연결시켜 이해했다.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 개념을 문맥과는 분리해서 추상화하고 절대화했다. Phyllis A. Bird, “히브리 성서의 신학적 인간학”, Leo G. Perdue 편집, 「히브리 성경 연구」(임요한 옮김), (서울: CLC, 2016), 368-369. 원제는 Leo G. Perdue,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Hebrew Bible* (Malden, Oxford, Carlton: Blackwell Publishing, 2005). “하나님 형상”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해석에 대한 언급은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본 논고에서는 “형상”과 “모습”의 외형적인 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6 유연희, 윗글, 198. 그녀는 ‘엘로힘’이 성서에서 여성을 가리키는 데도 쓰였음을 지적하며(왕상 11:5, 33절-시돈 사람들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명칭에 안드로진(자웅동체)의 요소가 있으므로 창세기 1장 26-27절에서의 엘로힘 언급과 인간 창조를 안드로진 관점으로 이해한다.

27 이신웅, “아담의 이름 짓기는 과연 문화 활동인가?”, 「기독교철학」 32호 (2021), 211.

28 고든 웬함, 「창세기 1-15」(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129. 원제는 Gordon J.

이러한 문장의 분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엘로힘은 외형/윤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순서로 창조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창세기 1:2에서 창조 원리로서 제시되는 “토후 바보후”가 잘 드러나고 있는 바, 엘로힘의 계획과 경향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실체가 바로 ‘그 사람’(하아담)인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이 엘로힘과 같은 형상과 모양, 곧 외형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 인간”이라고 정관사를 붙이는 이유는 이미 설계도면에 의해 창조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그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인간 창조는 포개짐²⁹의 3중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엘로힘의 외형과 사람의 외형이 딱 맞게 포개지고, 둘째, 엘로힘의 외형과 여자의 외형이 딱 맞게 포개지고, 셋째, 이에 의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엘로힘의 외형으로 서로 딱 맞게 포개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성차별이나 성 갈등의 요소가 없다.

이렇듯 “토후와 보후”의 원리를 통한 인간 창조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것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우등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우등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원리와 같은 재료’로 창조되었음을 이미 창세기 1:26-27에서 알 수 있다.³⁰ 또한 동물과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לְמִינֵהוּ, 레미네후) 창조된 것과 달리, 인간만이 ‘남성과 여성으로’(זָכָר וּנְקֵבָה, 자카르 우네케바)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29 일반적으로 “일치”, “포용”, “하나 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필자는 “포개짐”이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30 이 같은 분석에 의해 창세기 1장 26-28절의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2장 18-23절에서의 인간 창조 방식을 이미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본질”과 “외형”을 소유하는 딱맞게 포개지는 “한 쌍”의 “사람”(아담)이라는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이후 분석하겠지만, 여자의 창조와 아담의 이름 짓기는 이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이미 본질적으로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외형적으로 ‘포개질 수 없는’ 존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창세기 2장의 여자 창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남성과 여성에게 “에하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즉, “에하드”는 어떻게 외형과 하나가 되어 생명을 이루는가? 이미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표현 속에 그 대답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אֱלֹהִים יְצָרָהוּ** (자카르 우네게바)는 “수컷과 암컷”을 의미하는데, 28a절을 보면 엘로힘이 자신의 외형을 공유한 “수컷 남자와 암컷 여자”의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말이 “생육하라”(פָּרָה, 파라)로서, **פָּרָה**의 뜻은 “낳다”, “출산하다”, “태어나다”, “열매를 맺다”이므로,³¹ 수컷과 암컷이 ‘하나’(에하드)가 되어야지만 “생육하다”의 의미를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를 통해 엘로힘은 남성과 여성 둘 중에 하나의 성(性) 또는 남성과 여성외의 또 다른 성(性)으로는 결코 생명을 위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밝히며 생명 잉태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퀴어성서해석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개혁 유대교에서 “LGBT”³²의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 랍비 위닉(Margaret Moers Wenig)은 창세기 1장 27절의 “남자와 여자”를 ‘하늘과 땅’(창 1:1)의 경우처럼, 양극 대칭법인 메리즘(merism)으로 해석하며, ‘남자와 여자’는 젠더의 스펙트럼, 곧 모든 가능한 젠더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바, 27절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조합(combination)을 만들었다”고 말한다.³³ 하지만 “에하드”를 통한 생명 잉태의 관점에서 보면 그

31 “פָּרָה”, HALOT, Vol. Two, 963-964.

32 lesbian (레즈비언), gay (게이), bisexual (양성애자), transgender (트랜스젠더)의 첫 글자로서, 동성애 사랑과 이성애 사랑이 도덕적이지도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운동임.

33 Margaret Moers Wenig, “One Male and Female God Created Them,” in *Torah Queeries: Weekly Commentaries on the Hebrew Bible*, Ed. Gregg Drinkwater, Joshua Lesser, and David Shneer (New York Univ. Press, 2009), 111-116. 만약 첫 아담이 안드로진으로 창조되었다

녀의 주장은 텍스트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 엘로힘은 남자와 남자나 여자와 여자가 아닌 반드시 상반되는 두 개의 성, 곧 수컷 남자와 암컷 여자를 통해서만 “생명” 탄생의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므로, 남자와 남자나 여자와 여자는 온전한 의미에서 생육을 위한 “에하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위의 조합들로 성적인 기쁨과 쾌락의 성적 취향은 즐길 수 있을지 모르나, 엘로힘이 의도한 생명 탄생은 전혀 불가능하다. 나아가 “토후와 보후”의 관점에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조합은 외형만 포개지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생명이 없는 말 그대로 **תורה**(토후/팅 빈)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실상은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성(性)”으로 내부를 메꾸려는 부질없는 시도가 반복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퀴어성서해석자인 엘버트 슈워츠는 “창세기(1장의 인간 창조)는 생식을 하는 섹슈얼리티만을 유일한 것으로 정하는가?”라고 질문하는데,³⁴ “성”과 “성적 취향”을 혼동하는 듯하다.

3. 창세기 2장의 여자 창조 분석

기독교는 초기부터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는 남자 먼저 흙에서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뚝는 배필”이 되기 위해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고 해석하며, 그것을 근거로 여자가 남성에게 종속된 차등

다해도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성으로만 나누어졌기에,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성을 포함하는 merism으로 해석하는 것은 텍스트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34 데린 게스트, 로버트 고스, 모나 웨스트, 토마스 보해치, 「퀴어성서해석」(퀴어 성서 주석 번역위원회 옮김), (고양: 무지개신학연구소, 2021), 65. 원제는 Deryn Guest, Robert E. Gross, Mona West and Thomas Bohache, *Hebrew Bible, QBC I* (London: SCM Press, 2006).

적인 존재로 주장했다. 왜 하필이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자를 아담의 머리로 만들어 아담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고, 아담의 발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짓밟히게 하지 않았고, 그의 옆구리(side)로 만들어 그와 동등하게 하였고, 그의 팔 아랫 부분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받게 하였고, 심장 가까운 부분으로 만들어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³⁵라고 유대교의 설명을 제시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해석이 심각한 성차별과 성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성차별과 성 갈등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1) 야훼 엘로힘이 여자를 만든 이유: 에제르 케네그도(אֵלֹהִים בְּעֶזְרָתוֹ)

창세기 2장에는 아담(사람)을 만든 야훼가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를 위한 אֵלֹהִים בְּעֶזְרָתוֹ(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며, 결국 그 존재는 아담에 의해 “여자”(이쉬)라고 명명된다. 이러한 이해는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창조된 것만 못하다는 결론을 발생시킬 가능성, 곧 여성혐오 여성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에제르 케네그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오로지 남성을 위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방적인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에제르 케네그도”의 의미이다.³⁶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

35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1.- Genesis to Deuteronomy, 6th edition (Virginia, Mclean: Mac Donald Publishing Company, 1985), 20.

36 “에제르 케네그도”에 대한 사전적 문법적 특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보라. 이신웅, “아담의 이름 짓기는 과연 문화 활동인가?”, 「기독교철학」 32호 (2021), 211. 한편, “케네그도”는 문법적으로 줄 문제가 있는데, 두 개의 전치사가 합쳐진 복합어로서 그 뒤에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접미사가 붙어 있다. 문제는 복합어의 전체적인 의미가 각 단어가 갖는 의미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케네그도”의 경우는 참고

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에 대해 캐롤 메이어스(Carol Myers)가 제안한 것처럼, 이 문구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우월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비계층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합한 파트너”(suitable partner) 또는 “파트너로서의 돕는 자”(helper as partner)로 번역될 수 있다.³⁷ 이 속어적 용어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반대함으로 돕는 자”, “적합한 조력자”(fitting helper), “그에 일치하는 조력자”(a helper corresponding to him), “그 앞에서와 같은 돕는 자”(a helper as in front of him)로서 그녀가 그와 완벽하게 일치함을 의미한다고 본다.³⁸

이에 필자는 본 논의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에제르 케네그도”의 뜻을 “포개었을 때 꼭 맞는 형상”을 의미하는 “(그/그녀의) 마주봄 같은 도움”으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케네그도”가 거울 반대편에 비춰진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야훼께서 아담을 위해 만드시려는 존재는 아담이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한 존재로서, 거울에 반사된 아담 자신과 같은 형상과 모습의 존재, 곧 반대편에서 외형이 딱 맞게 포개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반대편에서 딱맞게 포개지는 관계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가? 앞선 창세기 1장의 분석에서 볼

할 만한 사례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보라. 존 H. 월튼, 「NIV 적용주석 창세기」(김일우 & 전광규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07), 250-251. 원제는 John H. Walton, *Genesi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1).

37 C. Myers, *Rediscovering Eve: Ancient Israelite Women in Context* (New York: 2013), 73-74.
 38 cf. *BDB*, 617. Allen P. Ross, *Genesi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48. 유연희는 창세기 1-3장의 쿼어 읽기에서 에제르 케네그도를 “구해주는 파트너”, “구원자 상대”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유연희, *윳글*, 202.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문제를 내포하는데, “구원”에 대한 출처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만들었다는 것은 문맥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한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문제와 타락을 전제할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시간 흐름에도 맞지 않다.
 39 일찍이 칼빈도 에제르 케네그도를 “거울”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다.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칼빈 주석: 창세기 1」(서울: 도서출판 다은, 2014), 104.

때, 에제르 케네그도가 의미하는 도움은 남자와 여자가 두 개의 성으로 나누어진 ‘하나’ 된 피조물로서 생육과 번성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קָנָה, 예비에하) 온 것에서 쉽게 드러난다. 야훼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קָנָה, 야베)올 때의 문법형태는 3인칭 남성형이다. 하지만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올 때는 3인칭 남성 단수에 3인칭 대명사 여성 접미어를 붙였다. 문자적으로 보면, 야훼는 아담에게 동물은 동성으로, 여자는 이성으로 각각 데리고 온 것이다.⁴⁰ 따라서 “데려오다”로 사용된 동사 “קָנָה”(קָנָה)는 동성 간에는 “들어오다”(cf. 창 6:18, 12:11, 레 25:22)의 뜻이지만, 이성 간에는 “동침하다”(cf. 창 16:4, 19:23, 30:4)의 뜻을 가진 만큼, 야훼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들여보낸”(קָנָה) 것은 다분히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형으로 축복한 “번성”과, “충만”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에제르 케네그도에서 의미하는 도움은 엘로힘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partner)로서의 협력적인 도움인 것이다.⁴¹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등이나 종속성과 여성혐오나 여성차별은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 “에제르 케네그도”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쌍방향적인 ‘인간’의 사명인 것이다.

다음으로, “에제르 케네그도”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야훼의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 사건을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자신의 동반자를 찾지 못하며 자신 스스로 외로운 존재임을 인

40 이와 관련하여 김희권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해 갖는 강력한 성적 이끌림(인력)에 대한 강조를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서울: 복있는 사람, 2017), 67.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직 여기에서만 갈빗대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קָנָה(켈라)는 성적 이끌림을 내포하지 않는다.

41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 1」(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259. 원제는 Kenneth Mathews, *Genesis 1:1-26*, NAC (Nashville: B&H Publishing, 1996).

식한 사건이나 문화 명령을 수행한 사건으로 이해한다.⁴² 그런데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문화명령의 수행이나 구약 신학자들이 말하는 통치권과 권위와 주권의 확인을 통해 인간이 우월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나 외로움에 대한 갈망을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아담을 위한 ‘뚝뚝 배필’을 만들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사람)이 참으로 ‘자신의 뜻(창조)에 맞는(포개지는) 인간’인지 아닌지의 시험(test)을 통한 합격/통과 여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⁴³ 야훼는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이끌어’(אָנָה) 옴으로서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알고 싶어 했다.⁴⁴ 즉, 야훼는 이제 자신이 손수 빚은 첫 사람(아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야훼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신과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외형이 다른 짐승들을 보고,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부르면’, 그 순간 야훼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이다. 결국 아담의 동물 이름 부르기 사건은 야훼께서 아담에게 행한 ‘테스트’였고, 아담은 그 테스트를 보기 좋게 통과하여 ‘증명’한 것이다.⁴⁵ 따라서, “에제르 케네그도” 사건은 어떤 동물

42 예를 들어, Bruce K. Waltke & 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61.

43 이신웅, 윗글, 231.

44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흙으로 빚어진 첫 사람은 남자 아담이 아니라, 아직 성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흙 피조물’(earth creature)이라고 주장하면서, “뚝뚝 배필”을 야훼 하나님에 의하면 흙 피조물에 필요한 이는 종속적이기도 우월하지도 않은 짝이며, 서로 비슷하여 고립감을 완화시켜 주는 짝이라고 말한다. 필리스 트리블,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유연희 옮김), (서울: 태초, 1996), 58-66. 원제는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6).

45 이신웅, 윗글, 224.

이 인간의 조력자(뚝는 배필)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신적 실험(divine experiment)⁴⁶이라기보다, 아담이 동물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알아보는 신적 실험인 것이다.⁴⁷

따라서 아담의 이름 짓기는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테스트였는데, 아무런 흠이 없이 통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⁴⁸ 엄청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한 아담을 위해, 그제 서야 야훼는 아담에게 딱 맞는 뚝는 배필, 곧 거울을 보듯이 ‘반대편의 도울 자’인 에제르 케네그도를 흠족해 하면서 손수 만들었고, 짐승들에게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그 존재를 아담에게 ‘이끌어’(הִנְיֹהֵ) 왔다. 왜? 아담이 그 존재를 보고 ‘무엇이라 부르는지’ 알고 싶어서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자는 22절에 중요한 표현을 생략하여 이 의미를 극대화시킴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담은 자신과 마주하는 존재가 마치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가진 존재여야지만 제대로 ‘뚝는/상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동물의 이름 짓기를 통해 증명한 것이다. “에제르 케네그도”를 이렇게 이해해야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딱 맞게 포개지는 외형임을 잘 드러낸다. “에제르 케네그도”는 서

46 Laurence A. Turner, *Genesis*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0), 20.

47 이신웅, 윗글, 221. 한편, 트리블은 “흠 피조물에게 걸 맞는 짝을 동물 중에서 찾을 수 없었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작업은 하-아담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을 내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필리스 트리블, 윗글, 69.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는 아담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본성은 창조 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본성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에제르 케네그도 사건이기에, “다른 가능성”으로서의 인간의 성의 창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신웅, 윗글, 224.

48 그런데 유대교 랍비 라쉬는 이 과정에서 아담이 동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Eric Lawee, “The Reception of Rashi’s Commentary on the Torah in Spain: The Case of Adam’s Mating with the Animals”, *Jewish Quarterly Review* 97-1 (2007), 33-36. 본문에 나타난 동사의 특성으로 볼 때, 아담과 동물의 성적 결합은 있을 수 없다.

로가 마주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정확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에제르 케네그도”는 남자와 여자에게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종속성이나 차별성 그리고 여성혐오 여성차별은 전혀 내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성적 정체성이 분명한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원리, 곧 “토후와 보후”가 지시하는 외형과 내용의 동일함에 딱 맞는 ‘인간’이다. 성적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는 것은 창세기가 제시하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아니다.

2) 아훼 엘로힘이 여자를 만든 도구: 첼라(צֶלָה)

이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 이 진술에 의하면 여자의 창조는 남자의 희생에 의한 것이 되어, 그런 연유로 여성은 남성에게 더욱더 복종해야 되는 점층적인 여성 차별적 해석을 부추긴다.

(1) “첼라” 이해의 역사

거의 모든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히브리어 צֶלָה(첼라)는 단순히 ‘옆면’(side)를 의미하며, 법궤의 옆면(출 25:12, 14; 37:3, 5), 건물의 옆면(출 26:20, 36:25) 등을 가리킨다.⁴⁹ 갈비뼈로 번역하는 곳은 오직 창세기 2장 21-22절뿐이다. 성서 해석의 역사는 “첼라”를 “옆면”(side)라는 번역보다는 “갈비뼈/갈빗대”(rib)을 더 선호하고, “옆면”도 결국에는 옆구리를 의미하기에 여성을 남성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남성 중심적인 해석이 대세를 이루었다.

49 BDB, 854, HALOT, vol. 2, 1030, TDOT, vol XII. 400-405, TWOT, vol. II. 1924, NIDOTTE, vol. 3, 7521.

AD 400-600년 사이에 편집된 유대교 랍비 문헌 창세기 미드라쉬 라바에는 야훼가 인간의 어느 부분으로부터 여자를 창조할 것인가를 숙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녀를 머리에서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눈으로도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너무 호기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귀로도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도청자일지도 모르니까. 입으로도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너무 말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도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너무 질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로도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잘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녀가 겸손할 수 있도록 몸의 숨겨진 부분에서 그녀를 창조할 것이다.⁵⁰

이 문헌에서 랍비들은 첼라를 옆면으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갈비뼈/갈빗대로 번역하여,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졌으며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성을 강조했다.⁵¹ 종합하면 유대교에서는 남자의 어떤 부분이 여자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는지 이해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견해 — 갈비뼈, 옆면, 꼬리 — 를 보인다.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설명은 탈무드(베라초트 61a)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 하와는 아담의 꼬리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제안한다. 타르굼 요나탄(Targums Yonatan)과 타르굼 옹켈로스(Targum Onkelos)와 미드라쉬(Midrash)는 “갈비뼈”(rib)를 선호하고, 라쉬(Rashi), 이븐 에즈라(Ibn Ezra), 람밤(Rambam), 랄백

50 *Genesis Rabbah* 18, 2.

51 특히, 람비 하나나 바르 아다는 “창세기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히브리 글자 싸메크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사탄도 만들어졌다”며 강력한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을 주장한다. 조철수, 「랍비들이 풀어쓴 창세 신화」 (파주: 서해문집, 2008), 101-214.

(Ralbag) 그리고 미드라쉬의 다른 의견들은 “옆면/측면”(side)을 선호한다. 라닥(Radak)과 같은 일부 주석가는 한 가지만 선호하지 않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⁵²

이러한 이해는 심지어 초기 이슬람교 전통에서도 나타난다. 무함마드는, “여자는 갈비뼈에서 태어났으므로, 너희 아내들에게 부드럽게 훈계하라. 너희가 그녀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너희는 그녀를 부러뜨릴 것이니 그녀의 비뚤어진 모습을 이용하라.” 무함마드는 여성의 성격상의 왜곡을 제거할 수 없다고 믿었으며, 모든 골곡을 가진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충고했다.⁵³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유대교의 탈무드의 내용을 차용하여 기정사실화 시키며, 왜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는 것이 적합한지 설명하려고 애썼다. 중세 스콜라 학자인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는 갈비뼈(rib)로부터 여성의 창조를 언급하며 “이브는 종이 되기 위해 아담의 발에서 취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되기 위해 아담의 머리에서 취한 것도 아니라, 그의 파트너(동역자)가 되기 위해 그의 ‘side’에서 취하여졌다”고 말했으며,⁵⁴ 중세 카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것은 옳은 일이다.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의 멸시를 받는 것은 옳지 않

52 Ari Z. Zivotofsky, “What’s the Truth about … Adam’s Spare Rib?” https://jewishaction.com/religion/jewish-thought/whats_the_truth_about_adams_spare_rib/

53 William E. Phipps, “Adam’s rib: Bone of Contention”, *Theology Today* 33 (1976), 264.

54 William E. Phipps, *Genesis and Gender: Biblical Myth of Sexuality and Their Cultural Impact* (New York: Praeger, 1989), 107에서 재인용. Lombard는 여자가 남자의 rib(갈비뼈)가 아닌 side(옆면)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가 side를 옆면으로 이해했는지 옆구리로 이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세 스콜라 학자가 히브리어 단어 “첼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고,⁵⁵ 중세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뻬에르 아벨라드(Pierre Abélard/Peter Abelard)는 갈비뼈의 해부학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자는 뼈들처럼 강하게 되기 위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으며,⁵⁶ 종교개혁자 칼빈도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⁵⁷ 국내의 경우 남성가부장제의 유교적 분위기와 일체의 호구제도 때문에 이 해석이 굳어져 버렸다.

근대화가 시기에 여성 인권 운동이 확대되면서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남성적 해석에 반기를 들면서 여성 중심적 해석이 대두되었다. 특히 엘리자베스 다비스(Elizabeth Davis)는 그녀의 책 *The First Sex*에서 어떤 히브리인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굴욕감에 너무 분개하여 여자를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모계 이야기를 재구성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담과 하와 신화는 그것의 원래 의미로부터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담이 하와의 갈비뼈에서 태어났다. ... 창세기 이야기에서 에덴동산은 위대한 여신 하와의 잃어버린 황금기를 나타낸다. 아담과 하와의 히브리어 이야기에 나타난 왜곡의 전체 의도는 두 가지다. 첫째, 여성 창조자의 전통을 부인하고 둘째, 여성의 본래 우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⁵⁸

55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lated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Benziger Bros. edition, 1947), 1, q. 92, 3.

56 J. M. Ferrante, *To the Glory of Her Sex: Women's Roles in the Composition of Medieval Tex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63.

57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윗글, 104-105.

58 Elizabeth Davis, *The First Sex* (Baltimore: Penguin Books, 1972), 142-144.

이를 보면 다비스는 남성에 대한 증오심을 “갈비뼈”를 통해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갈비뼈에 대한 번역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여성 구약학자 필리스 트리블도 여성의 창조에 대해 말하길, 흙 피조물에게 걸 맞는 짝(에제르 케네그도)을 동물 중에서 찾을 수 없었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성(性)을 창조하는 것이고 새 피조물을 만들 재료가 갈비뼈라 말하며, 여자는 흙 자체가 아니라 흙 피조물인 아담 내부에 있는 원재료로 만들어졌기에 독특하다고 말하면서, 갈비뼈는 첫 피조물인 아담과 두 번째 피조물인 여성 사이에 연속성과 비연속성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⁵⁹ 트리블은 여성 창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첼라”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 없고, 그저 전통적인 “갈비뼈” 번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여성에 의한 여성 중심의 해석은 여성이 차별적인 존재가 아님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남성혐오와 남성차별이라는 상반되는 성 갈등의 결과를 가져와 “첼라”에 대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었다.⁶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고모라(Aleksander Gomola)가 잘 정리했다. “창세기 2장 18-23절의 읽기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결과들은 명백하다: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할 수 없다. 여자 이전에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자의 연대순과 존재론적 우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⁶¹

59 필리스 트리블, *잇글*, 69-72. 하지만, 에제르 케네그도의 분석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여자는 남성에게 걸맞는 짝이 되기 위한 다른 가능성으로 창조된 대체물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트리블이 여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여성혐오적이고 여성차별적이지 않은가?

60 윌리엄 펴스는 “Adam’s rib: Bone of Contention”에서 갈비뼈의 논쟁적인 심각성을 파악하고 남성 중심의 해석과 여성 중심의 해석을 지양하며 “평등주의적” 해석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61 Aleksander Gomola, “The Myth of the Creation of Woman in Genesis 2:18-23 and its Possible Translations—the Consequences for Christian Anthropology”, *Studia Religiologica*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기독교 내에서는 구약학자 존 윌튼이 “히브리어 텍스트에 대한 초기 번역본들을 보면, 타르굼 옹켈로스는 아람어 *ܘܠܘ* (‘il’)를, LXX(70인역)은 그리스어 *πλευρά*(피레이라)를, Vulgata(벌게이트)는 라틴어 *costis*(코스티스)를 사용하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갈빗대도 될 수 있고 옆면도 될 수 있다. 그러다가 영어 번역본에 이르러 “갈빗대”라는 번역이 깊게 뿌리를 내렸다(Wycliffe Bible, Geneva Bible, King James Version 등). 아담 자신의 진술과 첼라의 더 지배적인 용법 모두가 ‘옆면’(side)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암시 한다”고 말한다.⁶² 유대교의 경우, 바르일란 대학교(Bar-Ilan University)의 뇌과학 교수 랍비 아리 지보토프스키(Ari Z. Zivotofsky)는 “What’s the Truth about... Adam’s Spare Rib?”(*Jewish Thought*)에서 유대인들의 첼라 번역 논쟁을 소개하며, 예시바 대학교(Yeshiva University)의 루이스 펠만(Louis Feldman) 교수와 바르일란 대학교 모세 치포르(Moshe Tzipor) 교수의 주장, 곧 “첼라”에 대한 올바른 번역이 갈비뼈/갈빗대(rib)보다는 옆면(side)이 문맥상 명확하다는 것을 제시한다.⁶³ 결과적으로 볼 때, 첼라에 대한 번역의 역사는 갈비뼈/갈빗대나 옆면이냐의 선호도 줄다리기가며 거기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어 보인다. 결국 첼라를 옆면으로 번역하든지 갈빗대로 번역하든지, 여자는 엘로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며 아무리 상보론/상호보완주의를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성은 남성에 영원토록 종속적이고 수동적이며 차별적인 존재일 뿐이다.

47 (2) (2014), 83, 77-88.

62 존 H. 윌튼,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김광남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42-143. 원제는 John H. Walton, *The Lost World of Adam and E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5).

63 https://jewshaction.com/religion/jewish-thought/whats_the_truth_about_adams_spare_rib/

(2) “첼라”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최근에 “첼라”를 “오펜”으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한다하더라도 그 의미는 결국 갈비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왜 “첼라”를 ‘갈비뼈’로 번역하려는가? 그 이유는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 때문이다. 비평학자들은 고대 수메르 신화에 나타나는 ‘갈비뼈로 생명의 여신을 낳게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변안한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남자의 갈비뼈 중 하나로 여자를 만든 이야기라고 말한다. 즉, 수메르어로 ‘갈비뼈’와 ‘생명’은 같은 음가인 ‘ti’를 가진 문자이기에 ‘갈비뼈’에서 ‘생명의 여주인’을 만들었다고 보고,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생명의 어머니)라고 지은 것은, 결국 ‘갈비뼈’와 거기에서 태어난 ‘생명의 여신’이라는 수메르 신화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⁶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Enki and Ninhursag 서사시(265-266)에서 “Rib-Ninti”의 주제가 창세기 2장 18-24절과 3장 19-20절에서 병행된다고 보고, 창세기 2-9장의 통일성은 Enuma Elish 서사시의 Bone-Blood 주제와 병행된다고 본다.⁶⁵ 그러면 비평학자들의 주장대로 고대 근동의 신화와 창세기의 연관성 때문에 “첼라”를 무조건 “갈비뼈/갈빗대”로 번역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필자는 “첼라”에 대해 새로운 아니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는 새 번역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외형”(shape, form)이다. 본 연구에서 창조 원리로 제시되는 “토후와 보후” 곧 “외형과 내용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첼라”를 “갈비뼈”로 번역하면 여자를 만든 내용물이 된다. 하지만 “오펜”으로 해석하면 여자를 만들 “외형”, “외형틀”이 된다. 이것을 확장시키면 야훼는 자신의 외

64 조철수,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신화」(서울: 도서출판 길, 2000), 135-136.

65 이에 대한 비교 도표는 다음을 보라. 엄원식, 「히브리 성서와 고대근동문학의 비교연구」(서울: 한울출판사, 2000), 43-45.

형(shape)으로 아담의 외형(shape)을 만들고, 그 아담의 외형(shape)으로 여자의 외형(shape)을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NIDOTTE에 의하면 “첼라”는 ‘구부러진’을 의미하는 어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외형의 굴곡적 특성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⁶⁶ 게다가 창세기 2장 22절도 חֲצֵלָה(하첼라/그 첼라)라고 해서 정관사를 사용하여 첼라의 정확한 출발점과 목적점이 ‘토후와 보후’(모양 없음과 채워지지 않음)와 관련이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외형적 특성(플랫폼, 틀)으로 딱 맞게 포개지게 되어 비로소 하나(한 몸, 한 살)로서의 인간(아담)이 되는 것이며, 야훼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27의 진술과 동일한 것이 된다. 특히, “tzela”(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담의 창조에서 여러 번 사용된 “tzelem”(첼렘)과 언어 유희를 보이기 때문에, 아담이 엘로힘의 “첼렘”으로 창조된 것처럼 여자도 아담의 “첼라”를 통해 엘로힘의 “첼렘”으로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창세기 1장에서 분석한 “엘로힘-남자-여자”의 “3중 포개짐”이 여자 창조를 통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⁶⁷ 그 결과 “토후와 보후”와 “에하드”의 창조 원

66 NIDOTTE, III, 811. 안타깝게도 이 특성은 중세 시대에 여성들을 마녀사냥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로마 카톨릭의 도미니크 수도회의 신학자들은 “첫 번째 여자의 형성에 결함이 있었다. 그 여자는 구부러진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가슴의 갈비뼈는 남자와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진 가슴의 갈비뼈다. 그리고 이 결함을 통해 그녀는 불완전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속인다(deceive)”고 말했다. Heinrich Kramer and James Sprenger, *Malleus Maleficarum* (New York: Dover, 1971), 44. *Malleus Maleficarum*(*마녀사냥교본*)의 작가들로부터 1세기 뒤에 살았던 조셉 스위트남(Joseph Swetnam)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녀는 남자가 고통스럽게 얻은 것을 소비하고 소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그들의 고집 센 본성을 보여준다; 갈비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비뿔어진 것이고, 여자는 천성적으로 비뿔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일이 그들을 화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Joseph Swetnam, *The Araignment of Lewie, Idle, Froward, and Unconstant Women* (London, 1616), 1. William E. Phipps, “Adam’s rib: Bone of Contention,” 265-26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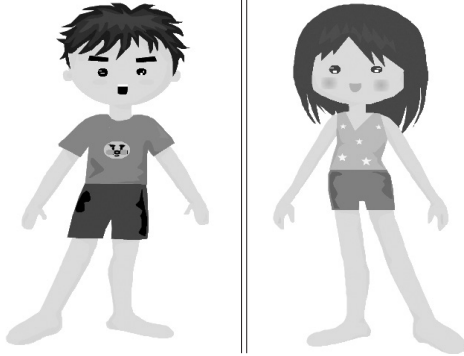
67 히브리어 “첼렘”, “첼라”, “첼”은 각각 “shape”, “side”, “shadow”를 의미하는바, 동일한 “외

리에 의한 최고이자 최종 완성품은 창세기 2장의 여자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여자는 절대 남자보다 차별적이거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존재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에제르 케네그도”를 통해서도 설명이 된다. 즉, “마주하는 반대편의 도울 자”는 아담에게 있는 어떤 특징을 통해 아담처럼 똑같이 존재케 할 것임을 의미하는 바, 아담에게 있는 어떤 특징과 그의 반대편을 합하면 비로소 드러나는 것, 바로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었을 때 꼭 맞는 외형이 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פָּנֶה(파네)는 연계형에서는 복수형의 פָּנִים(파니/파님)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흔히 사용하는 ‘야훼 앞에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לְפָנֵי יְהוָה”(리 파네 야훼)는 직역하면 ‘야훼의 두 얼굴 앞에서’이다. 연계형에서 얼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는 이유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얼굴은 반을 잘라서 포개어 놓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⁶⁸ 이러한 이해의 맥락에서, 아담을 위해 반대쪽(편)의 돕는 자를 만들겠다는 야훼의 계획은 아담과 포개었을 때 딱 맞는 반대쪽(편)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개었을 때 딱 맞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는 의미도 함께 보여준다. 이렇게 딱 들어맞는 반대쪽(편)이어야만 제대로 ‘연합’(따마크)할 수 있으며, 온전한 ‘하나’(에하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

형”을 공통분모로 하는 어군이다.

68 조철수는 이 같은 이해는 고대 수메르어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즉, 히브리어 ‘네게드’(반대편의)가 바빌로니아어 ‘미트하리쉬’(mithariš, 상대하는)와 연관이 있으며, ‘미트하리쉬’는 고대 수메르어 ‘소금(뿌린) 물고기’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양쪽으로 갈라 퍼놓은 소금절이 물고기와 같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상대하다’라는 단어는, ‘물은 원래 한 몸이었으나 양쪽으로 갈라져 퍼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꼭 붙어 있다’, ‘마주 서다’, ‘반대하다’ 등의 뜻을 내포한다고 말한다. 조철수, *윗글*, 132-133.



준선을 기점으로 남자와 여자는 양쪽에서 딱 맞게 포개는 존재이다.⁶⁹

그 결과 야훼의 여자 창조는 “첼라”라는 아담의 외형(토후)을 사용하여, “살”이라는 내용물(보후)을 집어넣어 딱 채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플랫폼과 동일한 내용물을 공유하고, 결국 여자도 **הָאָדָם הַחַי**(네폐쉬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⁷⁰ 남자와 여자는 플랫폼과 내용이 동일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 몸(body), 하나인 살(flesh)로서, 이 두

69 초기 유대교도 이런 개념으로 “인간”(아담)을 이해했다. 미드라쉬 창세기 라바(Midrsh Bereshit rabba)에 따르면 랍비 예레미야 벤 엘 아자르는 “찬미 받으시는 거룩하신 분이 첫 번째 아담을 만들어내실 때 그분은 그를 자용동체(안드로진)로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쓰여 있다. ‘그분은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아담)이라고 부르셨다’(창 1:27).” 이에 대해 랍비 쉬무엘 바르 나흐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찬미 받으시는 거룩하신 분이 첫 번째 아담을 만들어내실 때 그분은 그를 두 개의 얼굴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잘라 등을 두 개로 만들어 한 등은 여기에, 다른 등은 저기에 만드셨다.” 조철수는 이를 주해하기를, “두 랍비의 의견은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다는 양성 평등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 경우, 아담의 첼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첼라를 ‘옆’(side)로 풀이하면, 아담의 옆에서, 즉 두 개의 얼굴로 만들어진 아담의 다른 쪽으로 여자를 만들었다가 된다”고 말한다. 조철수, *윗글*, 101-103. 유대교에서는 초기부터 양성평등의 입장과 양성불평등 입장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70 여자 창조의 설명에서 여자의 몸에 생기가 불어 넣어진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여자는 이미 생명의 숨결을 포함하고 있는 남자로부터 창조되었기에 새로운 주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야훼가 아담에게 남자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여자에게도 생명을 주었음을 암시하므로, “첼라”를 “갈비뼈”나 “옆면”이 아닌 “외형”으로 번역하는 것을 뒷받침하게 한다.

존재는 평등하고 동등한 ‘하나’(에하드)된 인간임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첼라를 갈비뼈로 해석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과 종속성은 그 어디에도 존재할 틈이 없다. 남자와 여자는 양성 평등의 ‘한’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אַחַת מְצִלְעָתָיו (아하트 밋찰오타이브)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그의 갈비대 중에 하나”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적 의미는 “그의 옆면(외형)들로부터의 하나”(여성 명사 복수+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이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쌍, 또는 한 단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전체로서의 하나이지 숫자로서의 하나가 아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옆면들, 즉 앞에서 보았을 때의 앞면, 옆에서 보았을 때의 옆면, 뒤에서 보았을 때의 후면, 위에서 보았을 때의 윗면 그리고 아래에서 보았을 때의 밑면들이 모두 굴곡진 형태로서 인간만의 외형적 모양(shape)의 특징으로 하나 됨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 이에 필자는 “하나인 그의 외형들로부터”라는 번역을 제안한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같이 인간의 외형적 특징들이 하나 됨을 “하첼라”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하나로서의 그 외형’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본문은 야훼는 ‘하나’된 인간의 외형(shape)을 통째로, 마치 토기장이 조각가가 그 텅 빈 인간의 외형적 모양을 밑바닥에서부터 채워 기둥을 세우듯이(erect)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21-22절). 특히 여자 창조에 사용된 동사 **בָּנָה**(바나)가 “건축하다”(to build), “세우다”(erect)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⁷¹ 건축 자체가 먼저 외골격/틀을 만들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워 완전하게 세우는 것

71 BDB, 124a, HALOT, vol. 1, 139a, TDOT, vol III, 166-181, TWOT, vol. I, 255, NIDOTTE, vol. 1, 1215.

이기에 “첼라”를 “외형”으로 번역해야 되는 당위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야훼께서 외과 의사로서 수술하듯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⁷²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야훼께서는 ‘빛어서’(야차르) 남자를 만드신 것과 달리 여자는 더 섬세하게 ‘건축’(바나)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3) 시문이 보여주는 “인간”의 의미

이상의 분석은 창세기 2장 23절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는 기존의 해석을 교정하게 만들고,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먼저, 교정되는 부분이다. 창세기 23절은 내러티브가 아닌 시문으로 히브리어 전치사 **מִן**(민)이 총 3회, 즉 23a절에 2회 그리고 23b절에 1회 사용되었다. 그런데 1행은 “~중에”(of)의 최상급으로 두 번 모두 번역했고, 2행은 “~로부터”(from)의 분리로 번역하였다. 이에 따른 번역에 의하면 여자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에 남자보다 우등한 존재이고, 남자는 여자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왜 일까? 첼라를 갈비뼈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보다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가 훨씬 더 고급 재료로 창조되었기에 여자가 더 우등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 번역은 정말 앞뒤기 맞지 않다. 첼라를 갈비뼈로 해석하여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자는 더 우월한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남자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가? 서로 동등한 존재가 되려면 만들어진 방식과 재료가 모두 동일해야 하는데, 이 해석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자신에게 종

72 안타깝게도 트리블도 여자 창조를 “수술”로 이해한다. 필리스 트리블, 윗글, 70. 엄밀한 의미에서 여자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수술”(surgery)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더 깊은 차원에서 남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시키는 너무나 이기적인 피조물이 될 뿐이다. 과연 이러한 상이한 번역이 맞는 것일까?

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은 히브리어 전치사 “민”을 원래의 기본 의미인 “~로부터”(from)로 해석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시문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전치사 “민”을 1행과 2행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법적 원리에도 맞지 않다.⁷³ 따라서 전치사의 기본 의미를 살려 번역해야 창세기 2장 23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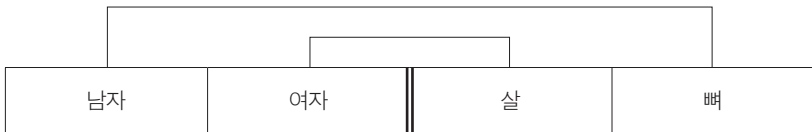
“이 (존재)는 정녕 내 뼈로부터(from) 뼈, 살로부터(from) 살이로라.
이 (존재)를 여자라 칭하리니, 남자로부터(from) 취해졌기 때문이로
다”(직역).

3개의 전치사 “민”을 동일한 뜻으로 해석한 결과, 남자와 여자는 둘 모두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재료로 차등적이게 창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남자와 여자는 재료나 방식이나 과정 등 모든 것에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차별이 있지 않고 동일하고 동등하다. 종합하면 여자는 뼈도 아담으로부터 살도 아담으로부터 외형도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에, 남자와 여자는 다른 두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재료와 외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의 앞(반대편의 마주보는)과 같은 도울 자”(에제르 케네그도)로 서로 딱 맞게 포개지는 존재인 것이다. 특히, “에제르”가 일치와 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다른 재료나 다른 외형으로 창조되어

73 cf. 박준서, 「구약세계의 이해」(서울: 한울출판사, 2001), 104-106.

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문이 말하는 인간의 의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3절은 구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첫 번째 시문이다. 아담의 발언을 내러티브가 아닌 시문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가 판단컨대 히브리어 시문이 주는 구조의 간결함과 그에 따른 의미의 함축성과 폭발성 때문이다. 히브리 시는 A콜론과 B콜론의 의미를 합해서 하나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아담의 발언을 기록한 최초의 시문을 보면, 1행에서 뼈와 살이, 2행에서 여자와 남자의 순서로서 “뼈, 살 // 여자, 남자”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이 구조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구조로서, A콜론에서 ‘뼈’와 B콜론에서 ‘살’은 각각 A’콜론에서는 ‘남자’를 B’콜론에서는 ‘여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 구조와 4개의 요소를 통해서 텍스트가 말하려는 것은 첫째, “인간은 뼈와 살을 가진 동일한 존재이며, 남자와 여자로 된 동일한 외형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제시된 창조 원리인 “토후와 보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구약에서 숫자 4는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어야지 비로소 완전하고 전체적인 ‘살아있는 인간’ 즉 ‘생명’이 된다는 것이다.⁷⁴ 이 또한 창세기 1

74 구약의 숫자에서 4는 전체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에스겔 7장 2절의 “땅 사방”으로 번역된 구절은 히브리어 「ארביא קרנאפוט 하-ארעז」로 그 의미는 ‘땅의 네 귀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네 귀퉁이는 땅 전체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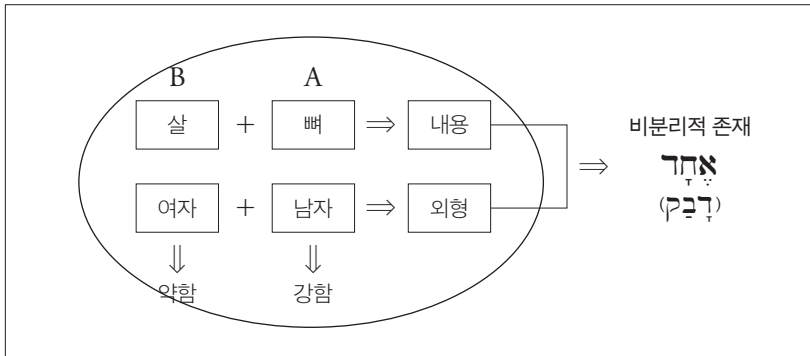
장에서 제시된 “에하드”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셋째, 뼈와 살이 붙어 있어야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도 ‘하나’로 붙어있어야(따바크)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뼈와 살의 분리는 죽음이며, 남자와 여자의 분리도 죽음임을 알 수 있다. 분리는 더 이상 생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조 원리로 제시된 “토후와 보후”와 “에하드”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이 구조가 밝히려는 생명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한 쌍으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읽게 의도되었음을 보여준다. 엘로힘은 “날”(욘)이라는 외형 안에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내용물을 채워 넣어 생명 유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아담이라는 외형을 먼저 만드시고(빛으시고) 그 안에 호흡이란 내용물을 채워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감싸고 있는 외형적 모양인가? 아니면 외형적 모양을 채우고 있는 내용물 생명인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인간의 외형적 모양과 내용물 생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생령(הַיְהוּדִים שָׁמַיָּה, 네베쉬 하야)이 되기 위한 하나의 셋팅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하나’(한 쌍, 한 단위)가 되어야지 생명은 생명의 기능을, 외형은 외형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하나’에 야훼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존재, 살아있는 인격체인 생령이 되어,⁷⁵ 외형과 내용(생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가 된 것이

표현은 이사야 11장 12절, 43장 5-6절, 욘기 37장 3절, 38장 13절 등에서도 발견된다.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서울: 하늘기획, 2009), 39-40.

75 초대 교회 이전부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초대 교부로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존재 구조를 이분설 혹은 삼분설로 나누어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과 구원론에 있어 엄청난 해를 미치고 있다. 흔히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를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여 영과 육의 이원론(dichotomy), 또는 영, 혼과 육의 삼원론

다. 텍스트는 이 4가지 요소를 통해 이것이 바로 한 단위(unit)가 무엇이고, ‘하나’(에하드)의 세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2장 23절의 구조를 확장시키면 다음과 같은 도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된 구조는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 첫째, 구약에서 살(אִישׁ, 바샤르)은 연약함을, 뼈(עֵצָה, 에츰)는 강인함을 상징하는바,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때에는 단지 ‘신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함의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인간 실존’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욥 2:5, 19:20, 시 38:3, 102:5, 미 3:2).⁷⁶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 “당신은 나의 연약함이며 강인함이요”. 이

(trichotomy)로 나누어 해석하지만, 이것은 모두 헬라 철학에서 유래한 표현일 뿐이며, 구약에서는 인간의 존재 구조를 이렇게 분리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재 구조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구약 저자들이 사용한 문학기법인 양극대칭법(merism)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훼께서 인간을 만들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 있는 인격체가 된 것은 항상 통일된 인격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윤상문, 「약속과 축복의 전주곡」(서울: 기독교신문사, 2004), 87-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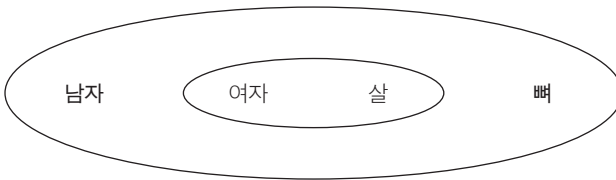
76 ‘뼈’와 ‘살’이 인간의 상호 관계적 차원에서 사용될 때에는 주로 ‘친척’(창 29:14), ‘부족’(삿 9:2) 또는 ‘지파’간의 ‘연대성’을 가리킨다(삼하 5:1, 19:13-14). 김정우, “히브리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성경원문연구」 20호 (2007), 9.

경우, 아담은 아내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녀를 보살필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뼈’와 ‘살’은 기본적으로 ‘계약/언약 관계’를 가리키므로, ‘나의/당신의 뼈와 살’은 계약/언약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⁷⁷ 즉 서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말이라는 것이다(cf. 삼하 5:1). 구약이 야훼와 이스라엘의 계약/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하는 것도 이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신 28:20, 호 4:10, 24).⁷⁸

셋째, “토후와 보후”, “에하드”, “생명” 등 창조 원리가 모두 반영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도표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자는 ‘외형적 형태’가 되고 여자는 내용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과 외형의 결합도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생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남자는 뼈처럼 강인해야 하고 여자는 살처럼 부드러워야 되지만, 남자도



77 이에 대해 김정우는 “창세기 2장 23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인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서로 골육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오직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혈육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적 배경 때문에 후에 레위기에서는 사람과 짐승과의 교합을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가 분석할 때는 김정우의 분석도 좋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포개짐의 원리’(פְּתִיחַת הַבְּרִית) 관점에서 레위기 18장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본다. 순서상으로도 창세기 2장 23절보다 창세기 2장 20절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월터 브루그만(Walter A. Brueggemann)은 ‘뼈’와 ‘살’을 오늘날 결혼식의 서약 형식인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부유할 때에나 가난할 때’와 같은 것으로 본다. Walter A. Brueggemann, “Of the Same Flesh and Bone, Gn 2:23a”, *CBQ* 32 (1970), 535.

78 송병현, *읽글*, 120-121.

살처럼 부드러운 면을 가져야 되고 여자도 뼈처럼 강인함 면을 포함해야 된다. 이 성격들의 조화와 균형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공통 과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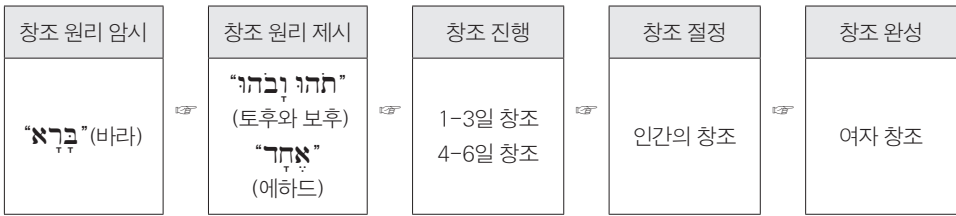
다섯째, 남자와 여자는 비분리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하나 되었을 때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분리가 아닌 ‘하나’의 온전함을 위해 창세기 2장 24절에서 **קָבַץ**(따바크)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더욱 구체화 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קָבַץ**(따바크)는 “두 개의 물건을 아교로 붙여서 하나(에하드)가 되게 하는 것”⁷⁹으로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두 존재를 포개었을 때, ‘서로가 상대방의 반대편의 모습’을 이루어 꼭 들어맞는 모습을 한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또한 **קָבַץ**(따바크)는 “묶다/연합하다”(to bind/joined togeth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약속 상태를 잘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을 뜻하기(신 4:4, 10:20, 11:22, 13:4, 30:20)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남편으로서, 여자는 남자에게 아내로서 각각 돕는 반대쪽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 구약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남편 된 야훼와 아내 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다.⁸⁰ 결국,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통해 토후와 보후의 의미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계약/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하드’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문으로 기록된 창세기 2장 23절은 뼈, 살, 여

79 BDB 179b, HALOT, vol. 1 209a, TDOT, vol. III 79-84, TWOT, vol. 1, 398, NIDOTTE, 1, 1815.

80 첼라는 외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자의 ‘외형’으로 여자를 만들겠다는 말은 결국, 남편 이신 야훼의 외형(형상)으로 아내인 이스라엘(인간)의 외형을 만들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토후와 보후의 관점에서는 그 외형인 야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야훼의 속성으로 그 내부를 가득 채운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외형과 내용이 ‘하나’가 되었듯이, 남편인 야훼와 똑같은 외형과 내용으로 된 아내인 이스라엘(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가 되는 선결 조건은 동일한 외형과 내용의 유무이다. 이러한 놀라운 신학적 관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남편과 아내라는 유비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남자라는 겨우 4개의 단어만을 가지고, 인간의 특징과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나아가 남편 야훼와 인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계약/언약 관계의 신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창세기 1장에서 제시된 창조 원리의 최종 완성의 결과가 바로 여자 창조임을 잘 보여준다.



결국 시문 분석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등성과 종속성, 남자에 대한 여자의 우월성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열등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과 동등성을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야훼를 창조주(엘로힘)로 믿고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인간관⁸¹은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된 동등한 한 인간이라는 인식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성 차별과 성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한 한국 기

81 ‘인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존 윌튼의 대답이 유의미하다. “이런 범주 지정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가리킨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무엇이든, 그것은 히브리어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는 BC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로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무렵에는 히브리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이름이 아니기에 이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들이 특별한 의미를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배정한 이름일 것이다. 특별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에게 배정된 이름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리키는 역사적 인물 이상의 존재가 된다. 그들은 그들 너머의 무언가를 대표한다.” 존 H. 윌튼,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105-106.

독교가 그 책임에 통감하면서 국가적 종교로서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인간관인 것이다.

(4) 신약과의 연결

필자가 “첼라”를 갈비뼈/갈빗대가 아닌 “외형”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은 신약과의 연결에서 더 분명해진다. 신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첼라를 갈비뼈/갈빗대로 번역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동등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갈비뼈/갈빗대라는 번역은 큰 문제가 된다. 결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와 남자와 여자의 기능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긴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하지만 신약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남겨 놓았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를 일컬어 “더 연약한 그릇”, 즉 “더 깨지기 쉬운 그릇”(ἀσθενεστέρῳ σκεύει, 아스테네스테로스 케우에이)이라고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교의 영향 때문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이해에 의하면, 여자가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서 절대 더 연약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열등한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가 더 깨지기 쉬운 존재이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가 잘못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가 잘못된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사용된 동사에서 찾을 수 있다. 야훼께서는 남자를 만들 때 ‘אָדָם’(야차르/빋다)를 사용하는데 반해(2:8), 여자를 만들 때는 ‘חַוְּלָה’(바나)를 사용했다(2:22).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창조될 때부터 비세한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차이는 재료의 차이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흙

이라는 동일한 재료를 공유한다.⁸² 그 차이는 기술의 차이로서 바로 투박함과 섬세함의 차이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자 창조에 사용된 동사 **קָבַץ**(바나)는 건축학적인 용어로서 “건축하다”란 뜻도 있지만, “(조각칼로) 새기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는 바,⁸³ 야훼께서는 흙으로 “빛은” 여자를 다시금 “(조각칼로) 섬세하게 깎아 새기듯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빛었다’는 표현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야훼께 소중한 존재이지만, “새겼다”는 뉘앙스를 통해 남자(빛다)보다 여자(바나)에게 야훼의 손길과 정성이 더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자가 “민무늬 토기”라면 여자는 “빛살무늬 토기”인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더 깨지지 쉬운/연약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재료로 각각 만들어졌다는 기존의 이해, 즉 유대교 랍비들과 헬라적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이해를 교정하는 것이다. 여자를 남자의 다른 부분들의 뼈, 즉 머리뼈가 아니고 발목뼈가 아닌 갈비뼈로 만들었기에 소중하게 다루라는 유대교의 랍비적 해석과 헬라적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과 보다는, 여자를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조각하듯 만드신 야훼의 행동에서 여자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와 텍스트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전서의 분석도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 절대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재료나 방식에서 그 어떤 차별성이나 종속

82 필리스 트리블은 창세기 2장의 아담에 대해 “흙 피조물”(earth creature)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자칫 야훼가 “지구인”(earthian)을 창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보여준다.

83 *TDOT*, vol. II, 167.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며,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 연구를 위해 과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여자 창조를 세밀한 읽기를 통해 주석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갈비뼈”라는 번역과 그에 따른 해석은 역사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되어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이라는 해악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남성가부장적 유교적 분위기에 전래된 기독교는 중국에서 전래 받은 번역대로 히브리어 첼라를 갈비뼈(늑골)로 번역하여 여성의 종속성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기에 이르렀고, 일제가 실시한 호구제도는 그러한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여성차별을 심화시켰다. 하지만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국내에 들어온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과격한 주장 때문에 오히려 남성혐오와 남성차별이라는 성 갈등을 유발시키며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상황이 이렇진대 국가적 종교라고 자부하는 한국 기독교(특히 개신교 보수주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의 기능적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라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본 필자는 이 문제가 히브리어 첼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세밀한 텍스트 읽기를 통해 발견하고 그 분석과정과 결과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참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분을 위해서도 첼라를 갈비뼈가 아닌 외형으로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창세기의 인간 창조가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 신화, 곧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차용하여 변안했다는(급진적 용어로는 “표절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약과 고대 근동의 차별을 위해서도 히브리어 “첼라”의 갈비뼈/갈빗대로의 번역을 지양해야 된다. 만약 기독교가 계속해서 첼라를 갈비뼈/갈빗대로 번역하고 그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버전이라는 굴욕적인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특히 개신교 보수주의)는 유대교와의 구별을 위해서도 창세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그동안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과 동등성이 아닌 차별성과 종속성을 규정짓는 “갈비뼈/갈빗대”라는 여성 혐오와 여성 폄하적인 번역을 동등과 평등을 의미하는 “외형”으로 교정하여 성차별과 성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을 미리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종교라고 자부하는 한국 기독교의 성실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본 연구의 목적은 타당성을 갖는 바, 연구의 결과를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받아들여 사회 일원으로서 이 위기적 상황의 해결을 위해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호숙, “개혁교회 성윤리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목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문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26집 (2012), 172-201.
- _____, “개혁교회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여성 신학적 고찰: 성차별적 설교의 정의와 기준 마련 및 복음적 설교에 대한 여성 신학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집 (2016), 301-326.
- 고든 웬햄, 『창세기 1-15』, (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원제 Gordon J.

www.kci.go.kr

- Wenham, *Genesis 1-15*,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 (서울: 하늘기획, 2009).
-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성경원문연구」 20호 (2007), 7-28.
- 데린 게스트, 로버트 고스, 모나 웨스트, 토마스 보헤치, 「퀴어성서해석」, 퀴어 성서 주석 번역위원회 옮김 (고양: 무지개신학연구소, 2021), 65. 원저 Deryn Guest, Robert E. Gross, Mona West and Thomas Bohache, *Hebrew Bible, QBC I* (London: SCM Press, 2006).
- 박건우, 이정읍. “한국의 여성혐오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집 (2019), 70-99.
- 박유미, “칼빈의 해석은 영원한 진리? 여성 본문에 대한 칼빈구약주석 연구”, 「구약논단」 24권 1호 (2018), 104-136.
- 박준서, 「구약세계의 이해」,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배철현, “Creatio ex nihilo”, 「宗敎學研究」 21집 (2002), 29-48.
- 백은미, “기독교 교육과정에 내재한 여성혐오 분석과 대안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1집 (2017), 41-73.
- 브루스 월트키, 「구약신학」, (김귀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원저 Bruce K. Waltke,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07).
- 성호숙, “현대 기독교 여성관 정립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모색”, 「신앙과 학문」 17권 (2017), 127-156.
- 손승희, “神學과 性差別主義 이데올로기”, 「神學思想」 40호 (1983), 160-174.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송인규, 양혜원, 백소영, 정재영, 김애희, 정지영,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8).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옮김), (서울: 숲, 2009). 원저 Aristotelis, *Politica*, recognovit W. D. Ross (Oxford: Oxford Classical Texts, 1957).
- 아시미 마사카즈 & 안정원, 「한국 기독교, 어떻게 국가적 종교가 되었는가」 양현혜 옮김. 서울: 책과 함께, 2015.
- 엄원식, 「히브리 성서와 고대근동문학의 비교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유연희, “창세기 1-3장을 퀴어링하기”, 「구약논단」 26권 4호 (2020), 188-218.
- 윤상문, 「약속과 축복의 전주곡」,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4).
- 이상성, 「벌거벗은 성서」,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8).
- 이신웅, “아담의 이름 짓기는 과연 문화 활동인가?: 문화명령과 관련된 두 개의 텍

- 스트(창 1:26-28, 2:19)에 대한 구약신학적 재고찰”, 『기독교철학』 32호 (2021), 201-243.
- 이영미, “성서의 쿼어성과 해석의 다양성: 인간 창조(창 1:27; 2:7, 24)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54권 2호 (2017), 35-61.
- 정태현, 강선남, 『칠십인역 창세기』,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정용석, “기독교 여성관의 역사”, 『대학과 선교』 13호 (2007), 309-339.
- 조철수,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신화』, (서울: 도서출판 길, 2000).
- 조철수, 『랍비들이 풀어쓴 창세 신화』, (파주: 서해문집, 2008).
- 존 H. 왈튼, 『NIV 적용주석 창세기』, (김일우 & 전광규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07). 원제 John H. Walton, *Genesi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_____,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 (강성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원제는 John H.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 _____,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김광남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제 John H. Walton, *The Lost World of Adam and Ev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5).
- 존 칼빈, 『칼빈이 말하는 교회에서의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 (김동현 옮김), (서울: 솔로몬, 1994).
-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칼빈 주석: 창세기 1』, (서울: 도서출판 다운, 1999).
- 차준희, 『모세오경 바로 알기』,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 최성훈, “여성혐오와 성차별: 기독교 여성관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56집 (2021), 169-195.
-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 1』, (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원제 Kenneth Mathews, *Genesis 1:1-26*, NAC (Nashville: B&H Publishing, 1996).
- 필리스 트리블,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유연희 옮김), (서울: 태초, 1996). 원제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6).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2003.
-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으로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집 (2017), 77-105.
- Atkinson, David. *The Message of Genesis 1-11*, (Downers: Inter-Varsity Press, 1990).
- Brueggemann, Walter A. “Of the Same Flesh and Bone, Gn 2:23a.” *CBQ* 32 (1970),

532-542.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1.*, (Jersalem: Broadman & Publishers, 1961).
- Davis, Elizabeth. *The First Sex*, (Baltimore: Penguin Books, 1972).
- Ferrante, J. M. *To the Glory of Her Sex: Women's Roles in the Composition of Medieval Tex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 Friedman, Richard E. *Commentary on the Torah*, (San Francisco: HarperCollins, 2001).
- Genevieve Lloyd, *Femist Theology: A Reader*, Ann Loads and Karen Armstrong, eds.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90).
- Gomola, Aleksander. "The Myth of the Creation of Woman in Genesis 2:18-23 and its Possible Translations—the Consequences for Christian Anthropology." *Studia Religiosa* 47 (2) (2014), 77-88.
- Gunkel, Hermann. *Genesis*, (Macon: Mercer Univ. Press, 1997).
- Harvey, Warren Zev. "Rashi on Creation: Beyond Plato and Derrida", *Aleph: Historical Studies in Science and Judaism* 18/1 (2018), 175-221.
-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McLean: Mac Donald Publishing Company, 1985).
- Lawee, Eric. "The Reception of Rashi's Commentary on the Torah in Spain: The Case of Adam's Mating with the Animals", *Jewish Quarterly Review* 97-1 (2007), 33-66.
- Luther, Martin. *Luther's Commentary on Genesis*,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1958).
- Neusner, Jacob. Dietrich, Wendell S. Freichts, Ernest S. Goldscheider, Calvin. Zuckerman, Alan. eds., *Genesis Rabbah The Judaic Commentary to the Book of Genesis A New American Translation vol. 1 Parashiyot One Through Thirty-Three on Genesis 1:1 to 8:14*,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5).
- Phipps, William E. "Adam's rib: Bone of Contention." *Theology Today* Vol. 33 (1976), 263-273.
- Phipps, Willam E. *Genesis and Gender: Biblical Myth of Sexuality and Their Cultural Impact*, (New York: Praeger, 1989).
- Ross, Allen P. *Genesi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 Ruether, Rosemary R. *Christian Feminism*, Judith L. Weidman, e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 Swetnam, Joseph. *The Araigment of Lewie, Idle, Froward, and Unconstant Wome*,

www.kci.go.kr

(London, 1616).

Tsumura, D. T. *Creation and Destruction: A Reappraisal of the Chaoskampf Theory in the Old Testament*,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Turner, Laurence A. *Genesis*,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0).

Rebecca S. Watson, *Chaos Uncreated*, (Berlin: de Gruyter, 2005).

Waltke Bruce K. & Fredricks, Cathi J.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Wenig, Margaret Moers. *Torah Queeries: Weekly Commentaries on the Hebrew Bible*. Ed. Gregg Drinkwater, Joshua Lesser, and David Shneer. (NY: New York Univ. Press, 2009).

Zivotofsky, Ari Z. "What's the Truth about ... Adam's Spare Rib?" https://jewishaction.com/religion/jewish-thought/whats_the_truth_about_adams_spare_rib/

검색어

첼라, 갈빗대/갈비뼈, 여성 혐오, 성차별, 사회적 책임

[ABSTRACT]

Is the Woman Created with the Rib of the Man?

Syn-Woong Lee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rethinking the Hebrew word “*tzela*” because the translation of the Hebrew word “*tzela*” into ribs further intensifies the gender conflict. For this purpose, this essay exegetically analyzes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in Genesis 1 and the creation of woman in Genesis 2 and proposes a new understanding and new translation.

From around the second century BCE, Judaism, which recorded and preserved the Hebrew Bible, was the first to think about how to translate “*tzela*” in Genesis 2. Reformers, in particular, posited the “side” as the original meaning of “*tzela*,” but could not escape the androcentric interpretation and used the translation “rib.” Unfortunately,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from Hebrew to another language, the Hebrew word “*tzela*” was translated into ribs, resulting in the blind belief that women were created as/from men’s “ribs” in Christianity.

With the transmission of Christianity to Korea, this translation was combined with the patriarchal Confucian culture of Joseon and the androcentric atmospher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orsening the problem of gender conflict as the theological basis for misogyny and discrimination. However, to this day, this translation has not been reevaluated within Christianity. To re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analyzes the creation 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reveals that “the

www.kci.go.kr

creation of women through ribs” began with the ancient Sumerian creation myth, and analyzes the uniqueness of the latter compared to the Genesis creation story. Next, after clarifying that the “tzelem” of human creation in Genesis 1 and the “tzela” of female creation in Genesis 2 are linguistically related, it is suggested that Hebrew “tzela” be translated into “form” or “shape,” rather than “rib” or “side.” Because man and woman have already been created in the same “appearance” in the human creation from Genesis 1, the female creation of Chapter 2 should logically be made in the appearance of a man, not a man’s rib. Another reason to translate “tzela” into “outward appearance” is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Hebrew “ezer knegdo,” which translates to “corresponding helper,” is “help from the other side facing the mirror,” so the creation of a woman is justified only when a man has the same “outward appearance” as looking into the mirror.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the creation of women is due to the principle of creation presented in Genesis 1, “tohu and bohu” (תְּהוֹ וְבוֹהוּ).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s not a difference in material or essence, but a distinction between external clunkiness and delicacy, through the different verbs used in the creation of men and women with the same appearance.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at women are not subordinated and inferior to men at all, but that women and men are essentially equal and equally cooperative beings. Finally,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urges the consequential social responsibility of Korean Christianity.

key words

tzella, rib, Misogyny, sexist, social responsibility

투고일: 2024년 10월 21일

심사일: 2024년 11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5일

www.kci.go.kr